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사용자단체·공동주택 관리자·전문가·사업자 등 참석
- 충전요금, 충전시설 소유·운영방식 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체감형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특히 충전기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주택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토론에서는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걱정된 충전기 기술사양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youtube.com/@mceenewsroom(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LIVE 채널 주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요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충전 원가산정 방식과 구성항목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 의견을 청취 중임(4.9.~)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강조하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서기관	김진형 (044-201-6897)



□ **회의개요** [기후부장관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아파트 전기차 충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목적) 최근 아파트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4.16.(목) 10:00~11:10(1시간 10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
 - * 외교부 청사 내 위치, 유튜브 생중계
- (참석자) 기후부 장관,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가, 언론계,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환경공단
 - * 충전기 자체 설치·운영 공동주택 대표(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장)

□ **진행순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2	'2	참석자 소개	진행자
10:02~10:05	'3	인사 말씀	기후부 장관
10:05~11:05	'60	토론	-
11:05~11:10	'5	마무리 말씀	기후부 장관
11:10~	-	폐회	-

※ 간담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